공용어로서의 말레이어와 타밀어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헌법상의 합의

싱가포르 공화국 헌법 제153A조는 말레이어, 만다린, 타밀어, 영어의 네 가지 공용어를 규정합니다. 또한 "국어는 말레이어로 하며 로마자로 표기한다"고 규정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외의 지역에서 만다린에 공용어로서 헌법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국가였습니다.[1]

이 합의는 제C편 제II장에서 살펴본 역사를 반영합니다. 1950년대 자치 국가의 정부는 말라야 연방과의 합병에 대비하여 말레이어를 국어로 정했습니다. 리콴유는 당시 그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어를 배워야 하지만, 다른 민족은 자신의 언어를 공부하고 사용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2] 1965년의 분리 독립으로 싱가포르에는 소수만이 가정에서 쓰는 국어가 남았습니다. 정부는 말레이 세계 속 국가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말레이어를 국어로 유지했고, 실무적 기능은 영어가 넘겨받았습니다.

헌법 제152조는 또한 정부가 "싱가포르의 원주민인 말레이인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말레이인의 이익과 말레이어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말레이어는 국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Majulah Singapura*의 언어입니다. 이 국가는 주비르 사이드(Zubir Said)가 작곡했으며, 1959년 11월 11일 입법의회에서 채택되었고, 1965년 8월 9일 독립과 함께 국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상 이 국가는 말레이어로 불러야 합니다.[3]

말레이어: 국어이자 지역의 가교

2020년 말레이계는 54만 5,498명으로 거주 인구의 13.5%였습니다. 말레이어는 여전히 그들 대다수의 가정 언어입니다. 다만 말레이계 가정에서도 영어가 확산되면서 그 비율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92%에서 83%로 떨어졌습니다. 1981년 4월 처음 설립된 말레이어협의회(Malay Language Council)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어의 표준을 정하고, 1962년 처음 열린 연례 말레이어의 달(Malay Language Month)을 통해 이 언어를 장려합니다.[4]

싱가포르 역사의 대부분 동안 말레이어는 공동체 간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바자 말레이어 형태로 말레이어는 식민지 항구에서 민족 간 공통어 역할을 했습니다.[5] 1979년 버스 조사는 그 역할을 확인해 줍니다. 말레이계 승객은 84.3%의 경우, 인도계 승객은 69.8%의 경우 중국계 차장에게 말레이어로 말했습니다.[6] 이후 젊은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는 영어가 이 기능을 넘겨받았지만, 고령의 중국계와 인도계 싱가포르인은 여전히 구어체 말레이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레이어의 상업적 가치는 해협 건너편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어의 표준형을 국어로 사용합니다. 제I편 제IV장은 싱가포르와 이 두 이웃 나라의 경제 관계를 설명합니다. 2008년부터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어를 제3언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7]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어로 협상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사하는 비말레이계 전문직은 드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가족이나 말레이시아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은행이나 로펌에게 말레이계 싱가포르인과 바하사 인도네시아에 능숙한 직원은 이중언어 정책이 거의 부수적으로 만들어 낸, 그리고 금융중심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타밀어와 남아시아의 언어들

2020년 인도계는 거주 인구의 9.0%였습니다. 타밀어가 그들의 공용어로 선택된 것은 가장 큰 인도계 집단이 쓰는 언어이고, 말라야와 싱가포르에서 가장 긴 교육의 역사를 지녔기 때문입니다.[8] 2010년 인구조사에서 타밀계는 인도계 거주자의 54.2%를 차지했습니다. 타밀어를 주된 가정 언어로 쓰는 인도계의 비율은 2000년 42.9%에서 2010년 36.7%로 떨어졌습니다.[9] 이러한 감소는 보통 영어의 흡인력과 인도계 이민의 다양성 증가로 설명됩니다.

학교 체계는 1990년대 초부터 그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인도계 학생은 벵골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펀자브어 또는 우르두어를 모국어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언어들은 일곱 개의 공동체 단체가 수업 시간 외에 가르칩니다.[10] 타밀어협의회(Tamil Language Council)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타밀어 사용을 장려합니다. 2026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린 2026년 타밀어 축제(Tamil Language Festival)는 47개 파트너와 함께 마련한 4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11]

타밀어의 경제적 관련성은 만다린보다 제한적입니다. 타밀어는 타밀나두주와 스리랑카 타밀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영어와 힌디어로 일하는 인도 비즈니스 전반의 언어는 아닙니다. 제I편 제III장은 싱가포르와 인도의 금융 관계가 주로 영어를 통해, 두 나라가 공유하는 보통법 유산을 통해, 그리고 GIFT City 같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타밀어의 가치는 무엇보다 사회적 결속, 그리고 싱가포르의 법률 및 금융 전문직에서 큰 역할을 해 온 인도계 공동체의 신뢰에 있습니다.

국가 원칙으로서의 다언어주의

네 개의 공용어는 언어를 넘어서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 공동체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거부하는 국가 안에서 공동체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말레이어, 만다린, 타밀어는 각각 언어협의회를 두고 있고, 각각 학교에서 모국어로 교육되며, 네 개의 공용어 모두가 많은 공공 게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물에 표기됩니다. 이 원칙은 영어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경제적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영어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바로 그 때문에 영어는 모든 공동체의 공통 업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칙은 공공 정책이 고용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만다린이 금융업에서 승진의 언어가 된다면, 말레이계와 인도계 공동체는 가장 높은 급여를 주는 부문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만다린의 상업적 가치와 공동체 간 동등한 지위 사이의 긴장은 금융중심지의 고용 관행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주

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153A조 제1항: “Malay, Mandarin, Tamil and English shall be the 4 official languages in Singapore”; 제153A조 제2항: “The national language shall be the Malay language and shall be in the Roman script”, 다른 언어의 사용, 교육, 학습을 보호하는 단서 조항 포함; 본문은 Université Laval, CEFAN, “Singapour : Constitution”, axl.cefan.ulaval.ca(2026년 11월 최종 접속)에 수록된 것에 따름; 제153A조를 인용한 Wikipedia, “Majulah Singapura”(2026년 11월 최종 접속); Culturepaedia, “Mandarin in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싱가포르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외에서 만다린에 공용어로서 헌법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국가. ↩
2. Culturepaedia, “Mandarin in Singapore”, 위 각주 참조: 1950년대 정부는 부분적으로 계획된 말라야 연방과의 합병을 뒷받침하기 위해 말레이어를 국어로 하는 다언어 정책을 채택; 리콴유는 “while all should learn the national language, other races should have the freedom to study and use their own languages”라고 말함. ↩
3.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152조 제2항, 위 Université Laval, CEFAN에 수록된 것에 따름: “The Government shall exercise its functions in such manner as to recognize the special position of the Malays,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who are the indigenous people of Singapore", 그들의 이익 "and the Malay language"를 보호, 보장, 지원, 육성, 증진할 의무 포함; 같은 조항을 인용한 Wikipedia, "Malays in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Wikipedia, "Majulah Singapura"(2026년 11월 최종 접속): 주비르 사이드 작곡; 1959년 11월 11일 입법의회에서 채택; 1965년 8월 9일 국가로 공식 채택; "By law, the anthem must be sung with Malay lyrics"; 싱가포르 국장·국기 및 국가법(Singapore Arms and Flag and National Anthem Act)으로 규율. ↩

4. Wikipedia, "Malays in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말레이계 54만 5,498명, 싱가포르 거주 인구의 13.5%(2020);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말레이어의 가정 사용은 "from 92% to 83%" 감소; Wikipedia, "Language education in Singapore": 2010년 말레이계 싱가포르인의 82.7%가 말레이어를 가정 언어로 사용; Wikipedia, "Language education in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말레이어의 달은 1962년 처음 도입; 말레이어협의회는 "first established in April 1981". ↩

5.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말레이어 어휘에 기반한 피진어인 바자 말레이어는 영국 통치 하에서 한때 "interethnic lingua franca"였음. ↩

6. Lee Kuan Yew, 위 1979년 9월 7일 연설, 부속 표: 중국계 차장에게 말하는 말레이계 승객은 84.3%의 경우 말레이어 사용; 중국계 차장에게 말하는 인도계 승객은 69.8%의 경우 말레이어 사용. ↩

7. Wikipedia, "Language education in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2008년 인도네시아어와 아랍어가 제3언어 선택지가 됨. ↩

8. Wikipedia, "Indian Singaporeans"(2026년 11월 최종 접속): 2020년 인구조사에서 인도계는 거주 인구의 9.0%로 세 번째로 큰 민족 집단;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타밀어는 가장 큰 인도계 민족 집단이 쓰고 "the longest history of education in Malaysia and Singapore"를 지녔기 때문에 선택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9. Wikipedia, “Indian Singaporeans”(2026년 11월 최종 접속), 2010년 인구조사 표: 타밀계 54.18%(18만 8,591명);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2010년 인도계의 약 36.7%가 가정에서 타밀어를 가장 자주 사용, 2000년 42.9%에서 감소. ↩
10. Wikipedia, “Language education in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벵골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펀자브어, 우르두어는 1990년대 초부터 모국어로 제공되며, 수업은 일곱 개 인도계 공동체 단체가 수업 시간 외에 운영. ↩
11. Tamil Language Council, tamil.languagecouncils.sg(2026년 11월 최종 접속): 협의회는 타밀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함; 2026년 타밀어 축제는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47개 파트너의 4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